Stage 9 More Stories A – Bigboots the Spider

Cover Note & 본문 번역

Cover Note	
About this Book (책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거미를 무서워하게 만들지 못했고 그는 이것을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장치와 그가 괴물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대해 자랑하는 것으로 증명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러나 그의 여동생이 그를 따라갔고 그는 자신의 천적-아주 작은 벌레-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거미는 그녀를 구하면서 진정으로 용감해지게 됩니다.
Talking Points (중요 포인트)	- 제목을 함께 읽어보세요. 아이가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일 것으로 생각하나요? - 아이가 5페이지를 읽고 잠시 멈추게 하세요. 거미의 엄마와 여동생이 그의 자랑에 감명을 받았나요? - 아이가 자신의 속도에 맞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Read aloud (소리 내어 읽기)	14~19페이지를 함께 읽어보세요. 아이에게 거미가 '그의 부츠를 신기에 너무 크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이유를 들어 말하게 하세요. 이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After reading (책을 읽은 후)	- 거미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아이에게 이 캐릭터가 마음에 드는지 의견에 이유를 들어 물어보세요. - 이야기의 마지막에 거미와 그의 여동생은 용감하고 겁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들은 더 이상 아주 작은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나요? - 31페이지를 함께 읽어보세요. 아이가 이 이야기가 좋은 결말을 가졌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Story Book (본문번역)	
p3	1 어떤 것도 날 겁나게 할 수 없어! 거미는 하루 종일 가시나무 덤불에서 놀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매우 탄력 있는 실을 타고 흔드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날 좀 봐! 나 날고 있어!' 모든 작은 곤충들과 딱정벌레들은 그가 영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p4	집에서 거미는 발차기를 하고 아주 빨리 회전을 했습니다.

	‘이거 봐!’ 그는 소리쳤습니다. ‘아주 똑똑하구나.’ 엄마는 그의 엉킨 다리를 풀며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양말을 맞춰 찾을 수 있을 만큼 똑똑하기를 바란다!’ ‘누가 양말을 신경 쓰겠어요.’ 거미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나무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p5	‘저도 나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그의 어린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거미는 웃었습니다. ‘네가 나처럼 커지고 용감해질 때까지 기다려.’ ‘잘난 체하지 마.’ 그의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는 거미의 자랑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의 이야기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p6	어느 날, 거미는 가시덤불의 한편에 집이 하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서 가만히 있어라.’ 아빠가 경고했습니다. ‘저건 괴물이 사는 곳이야.’ ‘어떤 괴물인데요?’ 거미가 물었습니다. ‘수백 개의 송곳니를 가진,’ 아빠가 말했습니다. ‘아주 거대한 것이야!’
P7	거미는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가지 마!’ 작은 곤충들과 딱정벌레들이 소리쳤습니다. ‘그 괴물은 널 붙잡을 거야! 그들은 너를 거대한 발로 짓밟을 거야!’ ‘난 두렵지 않아.’ 거미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날 겁나게 할 수 없어.’
P8	2 괴물의 집 거미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는 괴물의 집을 탐험하고 진정한 모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금살금 가시덤불을 지나 발끝으로 잔디밭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P9	갑자기 그림자가 거미를 덮쳤고 그는 나뭇잎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참새일 뿐이었습니다. 거미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 괴물의 집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용감하게도, 그는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P10	그 집은 조용하며 고요했고 거미는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방을 살펴보았지만, 송곳니를 가진 그 어떤 괴물도 볼 수 없었습니다. ‘파!’ 그는 말했습니다. ‘재미없어.’ 거미는 주저앉아서 다리를 긁었습니다.
P11	갑자기 땅이 흔들렸습니다. 쿵! 쿵! 쿵! 거미는 몸을 떨었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겁…겁나게 할 수 없어.’ 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때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송곳니와 쾅쾅거리는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거미가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P12	그 괴물은 발을 들어 올렸고 거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와줘!’ 그 괴물이 소리쳤습니다. ‘거미다!’ 그것은 공포에 떨었고 그 송곳니는 딱딱 부딪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하얗게 변해서 도망쳤습니다. 거미는 놀랐습니다.
P13	거미는 집에 돌아가서, 그의 가족들에게 그 괴물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것에게 겁을 줬어!’ 그는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보고는 도망쳐버렸어.’ ‘나도 그 괴물을 보러 가고 싶어.’ 그의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안돼.’ 거미가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겁을 먹을 거야. 너는 아주 작은 벌레를 보고도 겁을 먹잖아!’
P14	3 큰 부츠 거미의 이야기는 가시덤불 전체에 퍼져 나갔습니다. 작은 곤충들과 딱정벌레들은 거미와 괴물의 이야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유명해졌습니다.
P15	이제 거미는 더욱 모험을 원했습니다. 그는 다시 괴물의 집으로 갔고 욕조 배수구 안에 숨었습니다. 또 다른 괴물이 왔을 때, 거미는 뛰쳐나왔습니다. 이 괴물은 온통 분홍빛이었지만, 그것은 꽥하는 소리를 내며 첫 번째 괴물과 마찬가지로 도망쳤습니다.
P16	거미는 엄청나게 즐거웠습니다. 괴물들을 겁주는 것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베개 위로 올라갔고 그들의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는 그들의 아침 식사에 뛰어들었습니다.
P17	그는 그들의 코 아래에서 흔들거렸습니다. 그는 그들의 신발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거미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P18	거미의 엄마와 아빠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너는 차 마시는 시간에 언제나 늦는구나.’ 엄마가 투덜거렸습니다. ‘너는 부츠를 신기에 너무 커져 버릴 거다.’ 아빠가 경고했습니다.
P19	‘커다란 부츠!’ 거미의 여동생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오빠가 괴물을 본 적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그것을 전부 지어낸 거지!’ 거미는 활짝 웃었습니다. ‘넌 그저 나처럼 용감해지고 싶은 거지.’ 그는 말했습니다.

P20	4 조심해! 어느 날 아침, 거미는 괴물의 집으로 행군하듯 걸어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욕조 속에 앉았습니다. 그는 12개의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문에 매달렸지만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P21	갑자기, 거미는 자신의 여동생이 현관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괴물의 집으로 가는 그를 따라왔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그처럼 용감했습니다. 거미는 그저 그녀를 불러서 조심하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P22	그림자 바깥쪽에 아주 작은 벌레가 있었습니다. 거미는 작은 벌레를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그는 마치 젤리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조심해!' 그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동생은 듣지 못했습니다.
P23	그 아주 작은 벌레는 거미의 여동생 뒤쪽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주 작은 벌레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또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주 작은 벌레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P24	'살려줘!' 거미의 여동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그들은 쿵! 쿵! 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괴물이 집으로 다가오고 있어.' 거미가 소리쳤습니다. '뛰어!' 그러나 그의 여동생은 너무나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구해야 해.' 거미는 생각했습니다.
P25	그때 거미는 그의 엄마가 언제나 하는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아주 작은 벌레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은 너보다 훨씬 더 작은 존재야.' 거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문의 꼭대기까지 쌩하고 올라갔습니다. '아래를 조심해!' 그는 소리쳤고 급강하하여 그의 여동생을 붙잡았습니다.
P26	거미는 그의 여동생을 꼭 붙잡고 그녀를 흔들어서 문을 빠져나가서 잔디밭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고마워.'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오빠가 용감하다는 것을 믿지 못했는데, 정말로 그랬구나!' '글쎄, 너도 나만큼 용감한 것 같은데.' 거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P27	5 어떤 것도 우리를 겁나게 할 수 없어! 거미와 그의 여동생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어떻게 그가 그녀를 구했는지

	말했습니다. ‘오빠는 아주 작은 벌레 같은 건 무서워하지 않지,’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렇지?’ ‘그들은 너무 작지.’ 거미가 윙크를 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전혀 그것들이 무섭지 않아!’
P28	‘거미는 영웅이야!’ 모든 곤충들과 딱정벌레들이 소리쳤습니다. ‘내 여동생도 용감해.’ 거미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괴물의 집까지 혼자서 갔어.’ ‘맞아, 어떤 것도 우리를 겁나게 할 수 없어!’ 거미의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고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P29	그다음 날 아침, 거미의 여동생은 그가 짝이 맞는 양말을 찾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시덤불에 놀러 가기 위해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조심하렴.’ 엄마가 말했습니다. ‘너무 높은 곳에서 흔들면 안 된다.’
P30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서, 양옆으로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용감했고 겁이 없었고 그것은 대단했습니다!
P31	아주 작은 벌레가 집으로 갔을 때, 그는 자기 가족들에게 거미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겁을 줬어!’ 그는 자랑했습니다. ‘모두에게!’ ‘믿을 수가 없어.’ 그의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다음번에, 나도 오빠랑 같이 갈래!’